

이기는 삶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그 사람의 지금의 감정이 그대로 녹아 있고 건강상태도 그대로 드러난다. 목소리만으로도 그 사람이 지금 화가 나는지 마음이 불안한지를 알 수 있다. 심지어 목소리를 듣고 병을 알아맞히기도 한다. 차분한 목소리는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진심이 담긴 목소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존중하는 마음이 담긴 목소리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준다.

순수한 목소리의 힘

필자는 아르바이트로 밤에 우유 배송을 하고 있는데 신선한 충격을 받은 일이 있다. 우유를 트럭에 싣기 위해 트럭을 인도에 올린 후 냉장고 안에서 우유를 꺼내 오는데 누군가 냉장고 쪽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지팡이로 '딱딱딱딱' 나무 바닥을 치는 소리가 들리기에 '아, 장님이 길을 잘 못 들었구나!' 하는 생각에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여학생이 지팡이로 '딱딱딱' 바닥을 치며 냉장고 앞과 트럭 사이의 넓은 나무 디딤판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순간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길을

견다가 차가 길을 막고 있으니 무조건 인도라고 생각이 되는 우측으로 올라온 것이다. 그래서 "미안해요, 여기는 길이 아니에요" 하였더니 "이거 차죠? 차 맞죠?"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 맑고 티가 없었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목소리다. 그 목소리에는 짜증이나, 왜 인도에 차를 세워놓았느냐는 원망 섞인 소리는 전혀 없었다.

황급히 그 여학생의 어깨를 잡고 방향을 돌려 천천히 인도로 안내하여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주었다. 그 와중에도 그 여학생은 계속 지팡이로 바닥을 치며 자신이 밟을 디딤 곳을 확인하고 있었다. "고맙습니다."는 인사와 함께 여학생은 인도를 따라 걸어갔다. 불안한 마음에 멀어지려는 여학생을 한참을 지켜보고 있었다. 길이 익숙한 듯 그 여학생은 전혀 지장이 없이 인도를 따라 잘 걸어가고 있었다.

소리가 안 들리는 것보다, 걸을 수 없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한다. 어린 나이에 너무 안팎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아팠다. 상대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물어보는 그 목소리가 너



무 티 없이 맑아서 더욱 미안하고 가슴이 아팠다.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괜한 걱정이 올라왔다.

그때 헬렌켈러의 '삼 일만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하는 시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잘 살아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와 동시에 "감사합니다."는 말이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왔다. 두 눈이 멀정해서 감사하고, 두 귀가 멀정해서 감사하고, 두 팔이 멀정해서 감사하고 두 다리가 멀정해서 감사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나도 앞으로 저 여학생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수니의 요가교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매일 매일 예배를 보아"

이긴자와 더불어 예배 보는 한 시간이 우주만 한 금덩이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이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역사이므로 매일 와서 새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바라보아야 된다. 매일매일 오는 자는 인간의 탈을 벗고 마귀 속에서 석방되어 결국 인간 본연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몸이 변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우리몸의파워존골반~

잘못된 자세는 몸의 뼈와 근육을 나약하게 하고 생활습관병을 키우게 됩니다. 항상 앞으로 서나, 허리나 아랫배, 다리에 힘을 주는 생활습관을 길러주세요. 요통을 고치려면 골반과 허리뼈를 중점적으로 편하게 만드는 자세 중에서 "현재와 패기 자세"를 추천합니다.

골반의비틀림을수정하는자세~

효능: 골반의 높낮이를 수정, 혈액순환을 원활히 도와 생식기, 부인병 예방과

요통 완화.

동작①: 앉아서 왼발은 앞으로 접어

오른쪽 허벅지에 대고, 오른발은 구부려서 엉덩이 뒀다. 코로 호흡을 마시면서 두 손은 머리위에서 깎지 끼고 팔꿈치를 양 옆으로 활짝 편다. 배꼽과 골반이 앞쪽 중앙을 향한다. 10초 유지, 좌우 교대로 3세트

동작②: 코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아랫배에 힘을 주고 오른쪽으로 기울인다. 가슴과 허리, 척추는 위로 끌어 올린다. 10초유지, 좌우 교대로 3세트

골반을 비껴 늘림으로써 복부에 가스를 빼주는 자세~

효능: 대장과 신장, 직장의 활동을 도와 혈액순환이 좋아지며 숙변 제거, 대장, 신장, 복부가 가벼워져 척추에 편안함을 준다. 누워서 다리를 잡아당기면 요추의 위치가 수정된다.

동작③: 등대고 누워 양발을 모은 뒤

오른쪽 다리를 구부려 감싸 깎지를 낀다. 턱은 살짝 아래로 내리고, 코로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가슴으로 끌어 당긴다. 10초유지, 좌우 교대로 3세트



동작①



동작②



동작③



동작④

동작④: 호흡을 마시며, 무릎에 살짝 힘을 빼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끌어당겨 턱을 댄다. 10초 유지, 좌우 교대로 3세트. 주의: 양쪽 골반과 무릎이 바닥에 닿도록 한다. 어깨에 힘을 뺀다.*



격암유록 新해설 제79회

하늘의 무궁함이 사람의 마음이요 사람의 무궁함이 하늘의 마음이라

格菴歌辭 격암가사

天下一氣再生身 先天하늘이재생신 仙佛胎胎幾年間 선불태태가년간에 天道門前도문어열려오고 어화세상사람달아아러보고아러봐서 남의農事농사고만지고 내집농사農事저보세 福福바다타부는노래 四海사해가 진동커늘 불고과父母부모가는 四사람 답답하고不詳불상터라 天地합덕父母친자합덕부모님이 無知人間무지인간살나자고 天語傳천어전어말을 사람 不知壽부자욕을하니 내죄상이더럽고나

신선(神仙)이요 미륵불이 천하 일기로 다시 몸을 나투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는가? 이제 천도문(天道門) 즉 불사영생의 문이 열렸으니 어화 세상 사람 들어! 알아보고 알아보아서 남의 농사(마귀 농사) 그만 짓고 내 집 농사(인류구원의 영생농사)를 지어보세. 복 받으라 부르는 노래가 사해(四海) 즉 온 세상에 진동하거늘 천지의 부모를 돌아보지 않고 가는 사람 답답하고 불쌍 터라. 천지 합덕한 부모님이 무지한 인간을 살리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진경(眞經=격암유록)에 이른 말을 사람들이 모르고서 욕을 하니 내 죄상이 더럽구나.

天地천지가 합력합력하니 愚夫女知도덕우부녀지도덕이요 時來運數此時시래운수차사하니 生死是非吉凶생사사비길흉이랴 路柳楊花노류양화격격거늘고 淸風明月淸풍명월그만놓고 極樂世界극락세계 기운임을

世上人間세상인간노라보세

천지가 힘을 합치니 어리석은 부녀라도 도덕(道德)을 알아오 세월이 흘러 하늘의 운수가 도래하는 이때에 생사(生死), 시비(是非), 길흉(吉凶)이 판가름 나느니라. 노류장화(柳楊花=청녀나 기생)나 희풍하며 청풍명월(淸風明月=자연의 풍광)을 즐기며 세월 보내는 일을 그만해야 하는데 천지가 합력하여 내리는 기운이 극락 세계가 오고 있음을 말해주는데도 이것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놀아 보세 하는구나.

天無窮而人心천무궁이인심이요 人無窮而天心인무궁이천심이라 天心人心明明천심인심명명하니 明天地명천지날과달이 日月天道德일월천도덕이네 無窮歲月무궁세월자나기니 死未生初사말생초보단말가 운수있는저사람은 生初생초보야 歸一귀일치만 운수없는저사람은 生初生初물라 歸一귀일하네

하늘의 무궁함이 사람의 마음이요 사람의 무궁함이 하늘의 마음이라. 천심과 인심이 밝고 밝으니 대명(大明)천지의 해와 달이 천지의 도(道)와 덕(德)을 밝히도다. 무궁한 세월이 지나갔으니 죽음의 세상은 끝이 나고 영생의 새 세상을 보게 된다는 말인가? 살 운수(運數)가 있는 저 사람은 영생의 새 세상이 시작됨을 알아차리고 마귀를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만 운수없는 저 사람은 영생의 새 세상이 시작됨을 알지 못하고서 흉한 죽음(마귀)의 길로 돌아가네.

弓乙圖歌 궁을도가

此時訪道翁君子 차시방도침군자들 弓乙乙何不知궁을을하부지 左弓右弓弓 좌궁우궁궁궁이요 臥坐從橫乙乙외립종횡을을이라 泛濫無味弓乙범람무미궁을을일가 深索有理弓乙심색유리궁을을이라 弓理致궁이치알랑이언 兩白之理心覺양백지리심각하소

도(道)를 찾는 여러분들 궁을을을을 어찌 모르는가? 좌궁우궁이 궁궁(弓弓)이요 즉 궁(弓)자가 등을 지면 불(火) 보불 불이요 을을(乙乙)이 하나는 높고 하나는 일어서고 가로세로로 합한 것이 만(卍)이라. 지식이 넘치는 사람이라도 궁을의 참뜻을 모르니라. 그러나 궁을을 깊이 찾아보면 심오한 이치가 있느니라. 궁궁의 이치를 알려면 먼저 양백의 이치를 마음에 깊이 깨달아야 하리라.

先後天地通合時선후천지통합사에 河洛圖書兩白하락도서양백이라 兩白之意양백의의알라거든 兩白心衣仔細양백심의자세지라

衣白心白奧妙理의백심백오묘리 心如琉璃行端正심여유리행단정 大小白之兩白山대소백지양백산은 天牛地馬兩白천우지마양백이요 弓乙之圖圖見궁지도상견이면 左山右山兩山좌산우산양산이니 所謂兩山兩白소위양산양백이요 亦謂兩山雙弓역위양산쌍궁이라

선천(先天) 하도와 후지(後地=후천) 낙서가 통합하여 나오는 것이 양백이니라. 양백의 뜻을 알려거든 몸과 마음이 눈보다 더 희고 깨끗하여 빛나는 것(의백심백 衣白心白)임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몸과 마음이 눈보다 더 희고 깨끗하여 빛나는 오묘한 이치는 마음이 유리같이 투명하고 단정함을 말하는 것이니라. 대백(大白)과 소백(小白)이 양백(양백산)이며 천우지마(天牛地馬)도 양백이요. 궁궁(弓弓)의 그림을 자세히 보면 좌산(左山)과 우산(右山)이 바로 양산(兩山)이요 소위 양산이 양백이요 역시 양산이 쌍궁(雙弓)이니라.*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나를 이기는 길

단전호흡

나는 어려서 도박을 좋아했다. 초등학교 때 동네 친구들과 적은 돈을 걸고 쫓다도 하고 도리짓고땡도 했다. 도박을 좋아하다 보니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놀다가 학교에 지각한 적도 많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가 왜 그렇게 도박을 좋아했는지 나중에 피의 원리를 알고 이해하게 되었다. 피의 원리란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한다는 원리를 말하는데 죄의 마음을 먹으면 죄의 피로 변하고 의로운 마음을 먹으면 의로운 피로 변한다는 것이다.

죄에는 자범죄(自犯罪), 유전죄(遺傳罪), 그리고 원죄(原罪)가 있다. 자범죄란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지은 죄를 말하고 유전죄란 조상들이 지은 죄를 말하고 원죄란 인류의 첫 조상이 지은 죄를 말한다. 누가 죄를 이렇게 분류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나 아마 전도관 박태선 장로님이 말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승리제단에서는 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알아보자.

죄란 어떤 것입니까? 선생님: 죄란 마귀의 영이다. 마귀의 영이 마귀니므로 죄란 마귀이다. 따라서 죄를 짓는 것은 마귀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 속에 있는 마귀니만 제거해 버리면 죄를 해결했다가 되고, 의인이 됐다가 되는 것이다.

사람 속에 마귀니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선생님: 사람은 원래 부처님이었다. 그런데 마귀니가 부처님을 포로로 사로잡게 되었다. 태초에는 부처님과 마귀니가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귀니가 부처님을 사로잡아 마귀니의 영적 감옥에 가두는 순간 지금의 사람의 모습으로 부처님이 변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부처님이 마귀니에게 졌던 것이다.

부처님이 마귀니에게 졌다니요? 선생님: 부처님은 선한 신이고 마귀니는 악한 신이다. 악신이 선신을 이겼다는 것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 세상이 악이 강한가, 선이 강한가? 악이 강하지 않은가. 또한 자신을 잘 살펴봐도 알 수 있다. 자신 속의 악이 강한가, 아니면 선이 강한가? 악이 강하다.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양심이요 다른 하나는 욕심이요. 양심은 선한 마음이요 욕심은 악한 마음이다. 욕심이 강한가, 양심이 강한가? 아무리 양심대로 살려고 해도 잘 안 된다. 양심이 욕심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 것이다. 사도 바울도 아무리 선을 행하고자 하여도 악이 함께 한다며 자신을 끈고한 사람이라고 한탄했다. -계속

코로나19 합심하여 이겨냅시다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Table with 4 columns: 지역제단 (지역제단, 수원제단, 안성제단, 평택제단, 부산제단, 영도제단), 김해제단, 사천제단, 포항제단, 순천제단, 정읍제단, 군산제단, 대전제단, 청주제단, 충주제단, 양평제단, 橫濱祭壇, 神戶祭壇, 下關祭壇, 大阪祭壇, London, Sydney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디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